

교과교실형 학교 운영에 대한 기대와 지원 과제

Expectation and Tasks on Operation of Subject Class-Based School

박 영 숙*

Park, Young-Sook

1. 교과교실형 학교 운영에 대한 기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선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5월 20일 '교과교실제 본격 도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초순에는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에 대한 지역권별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7월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시범 운영 학교 선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선정 학교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학교는 선진형(A타입), 과목중점형(B타입), 수준별 수업형(C타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약 650개 정도 선정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교과교실제 전환을 위한 시설 지원비와 교원 연수비가 지원될 것이고, 교사 및 행정 보조 인력도 지원된다. 지원비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교사와 단위학교에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교과부가 기대하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이러한 기대에는 교육과정 자율운영 확대 정책에 근거한다. 학생 선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운영되면서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 폭이 확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블록타임; block time)과 교과별 수업 시수의 자율편성(학년 및 학기별 집중이수제 등)이 가능해지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교과교실제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결되거나 수반되어야 할 변화 요건들이 있다. 전문가들

이 주목하는 중요한 변화로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조 변화와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 확대에 있다. 학교운영체제에서는 학급 관리 중심에서 교과교육 지원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선택의 폭이 확대되면서 학교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교과별 수업시수의 자율 편성이 촉진되어 질 것이다.

교과교실형 학교 운영에 대한 교원의 기대도 높다.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특성에 맞게 교수·학습 자료를 갖춘 전용교실에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고, ICT 환경을 갖추고 전문성 높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및 맞춤형 수업을 계획하여 지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높일 있을 것이고, 나아가 교육효과나 교육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형교육과정 개혁의 흐름 속에 2009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준비하는 정책 관계자들 또한 교과교실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교과교실제 시범운영 단계에서 교육과정 자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되게 되면 사실상 선진형 학교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학교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바람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실제가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요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너무 이른감은 없는가의 관점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교 현장의 교과 수업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교과교실제 운영이 교육과정 운영과 소요 교실과 교원 연수를 연계하

* 정회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장, 수석연구위원

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 여건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양한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교육과정-교원-학교건축-학교운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에 있다. 이하에서는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교과교실형 운영을 위한 지원 과제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¹⁾

가. 교과교실제의 정책 지향성 및 추진 방향

교과교실제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수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학교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미래형 인재육성이 가능한 교육운영지원체제를 지향한다. 교과교실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학급 단위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교과 수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운영지원체제를 전환시키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학교운영지원체제의 변화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과 시설 환경, 교원 조직, 재정지원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학교 필요에 따라 수업 시간과 학기당 최소 과목 이수 등을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학생의 자율 선택 과목이 확대되며, 교과목(군)별로 최소 및 최대 시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학생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별 수업 운영이 실시된다.

셋째, 교원 및 행정인력 지원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과 운영을 위한 기간제 강사 및 보조 교사 등의 교사가 확보되고,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 연구 및 수업 내실화를 위한 학교 인턴, 공익 근무 요원 등 행정 보조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교과 수업 운영 정보를 중심으로 교사에 대한 심층 연수가 지원되고, 교재 개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다.

넷째, 시설 환경 측면에서는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과전

용교실이 마련되고 학생과 교사의 활동을 촉진하는 교구와 교재가 설비된다. 교과별로 교사 연구 공간, 교과 자료 센터와 오픈스페이스 등이 구성되고, 학생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휴게실, 자율학습실, 탈의실, 사물함 등의 지원 공간이 마련된다.

다섯째, 교실 배치 방식에서 교과목의 특성과 과목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과 과목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실들이 블록화되어 배치되고, 편복도의 일자형 배치가 수업 운영에 편리한 다양한 모양의 형태로 변화된다.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교실이 마련되고, 수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가 확충될 것이다.

여섯째, 교과 수업에 필요한 수업 모형과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교원 연수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질 것이다.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다양한 수업 방법과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과별 수업 방법과 교재 자료가 DB로 구축되어질 것이고 수업 전문성을 높이도록 수업 컨설팅 등의 연수가 활성화될 것이다.

나. 교과교실제의 추진 유형 및 내용

2009년도 교과교실제는 현재의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도입된다. 세 가지 유형은 선진형 교과교실제(A타입)과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B타입), 수준별 수업형 교과교실제(C타입)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운영 특징과 적용 교과, 지향성 등은 <표 1>과 같다.

A타입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에 적용되고, 교과별 수업시수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에서는 과학과 수학교과를 중점 운영하는 B-1타입과 영어교과를 중점 운영하는 B-2 타입으로 세분된다. B-1 타입에서는 고 1학년 교과교육과정 외에 연간 60시간 이상의 과학 활동 시간이 가능하고, 전 학년 수학 '2+1'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특징이 있다. B-2 타입은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 운영과 실용 영어 위주의 수업 시수가 확대가 가능하다. C 타입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의 5개 교과에 적용한다.

A 타입은 학교자율화 모형과 연계 지원되며 핵심선도 학교의 성격으로 2009년에는 45개 정도 희망학교에서 한하여 시범 운영되어질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희망학교는 공모 절차로 선정된다. B 타입은 240-260교, C 타입은 350-370교의 규모로 운영된다. 시·도별로 배정되는 유형별 학교 규모는 <표 2>와 같다.

1) 교과부의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안(2009b)과 박영숙(2009)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표 1. 교과교실제 적용 유형, 내용 및 정책 지향성

유형	'09선정 학교수	특징 및 적용 교과	소요 예산 (평균액)	정책 지향성
A type 선진형	45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형 교과교실제 모형 적용 • 적용 교과 및 과목 : 대부분 교과목 	교당 1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선도학교(core school) • 글로벌 학교운영지원
B type 과목 중점형	240~260교 (252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학 집중과정 운영 지원 • 적용교과 및 과목 - 수학 4과목, 과학 8과목 개설 	교당 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과학영재육성 기반 구축 •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교과 집중과정 운영 지원 • 적용교과 및 과목 - 영어교과 	교당 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유입
C type 수준별 수업형	350~370교 (355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특징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과목 지원 • 적용 교과 및 과목 - 수준별 과목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중 3개 교과 이상 	교당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 •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 제고
전체	600교내외		총 3,000억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안)', 5월 22일자

표 2. 교과교실제 지역별 배정 규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적용 유형	A	6	2	2	2	1	1	1	8	2	2	3	3	3	4	4	1	45
	B-1	17	8	5	6	3	3	3	22	7	5	7	7	9	11	11	2	126
	B-2	16	7	5	6	3	3	3	22	7	5	7	8	10	11	11	2	126
	C	45	21	14	16	10	10	7	62	19	14	21	22	27	32	30	5	355
배정학교	84	38	26	30	17	17	14	114	35	26	38	40	49	58	56	10	65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지역설명회 자료집

2010년 이후에는 A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 학교 선정 절차 및 지원 전략

교과교실제는 2009년부터 기존 중등학교부터 희망학교에 한하여 시범 적용되고, 2011년 이후 개교되는 신설학교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교과교실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과교실제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교과교실지원센터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본부내에 설치된다. 교과교실지원센터는 교과교실제 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 컨설팅과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선정 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우수 사례를 보급하는 전략도 병행 추진된다. 향후 과목중점형과 수준별 수업형은 중·장기적으로 선진형으로 유도될 전망이어서 선진형의 운영 규모는 2009년 45개에서 2010년 600여 개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학교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학교장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수렴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교육청으로 신청한다. 선진형은 전체 교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과목중점형과 수준별 수업형은 전체 교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청은 「교과교실학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과목 중점형과 수준별 수업형은 교육청에서 최종 선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고,

선진형의 경우만 후보 학교를 1.5배수 추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다. 선진형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종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청 수준의 교과교실학교심의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직원, 시설전문가 등으로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게 구성한다. 선정학교에 대하여는 교장연수, 중·개축 리모델링, 교사 및 행정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인사 가점 및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교육청 성과 평가 등에 반영된다.

3. 교과교실형 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 과제

교과교실제에 대하여는 학생 이동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학생에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교과교실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주된 성과의 하나로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력 제고를 꼽는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표를 살피고 시간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자세로 변화되고, 학생간 친화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또한, 수준별 이동식 수업 운영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학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제시되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교과교실형의 운영에 대하여는 보다 계획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과교실형 학교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지원 요구를 수렴하여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다양한 기반에는 교원 양성과정 개편, 전보제도 개선, 수급 계획 수립, 수석교사제 운영, 연수 교육과정 편성 등과 연계한 인사제도 개편이 요구되나, 이하에서는 학교건축 계획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첫째, 교과교실형 학교 운영에 관한 학교 관계자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한 실무자용 매뉴얼이 지원되어야 한다. 교과교실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시·도교육청 실무담당자와 학교 교원의 이해가 미흡하므로 매뉴얼 개발 작업은 시급하다. 매뉴얼의 내용은 교과교실형 학교의 운영 내용과 지원 요건,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 수업 시간표 편성 및 운영, 교실 공간 구성 기준,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실무자가 함께 공유해야 할 핵심 내용과 지향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기존학교를 전환시키는 모델과 신축 학교에 적용하는 모델로 구분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과교실형 모델 적용에 관한 실무 연수가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45개 선진형 교과교실제에 대하여는 단위학교에서 수립한 학교운영 계획서를 토대로 시설 측면에서 대응 지원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요구를 공유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운 장애 요소와 해법에 관하여 협의하는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교실지원센터의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교과교실제의 소요 교실과 교사 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009년도 계획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교과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정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감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학교 급별로만 목표를 제시하였을 뿐 교과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과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당 학급 수의 적정 기준도 탐색될 필요가 높다.

넷째, 교과교실제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교과교실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이 요구된다. 2009년도 교과교실지원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지정되고 운영 재원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특교금의 성격이어서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 2009년도의 시범 운영 규모를 600여 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

해서는 재원의 구조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및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교과교실형 학교 운영에는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들이 참여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클럽의 구성·운영이 불가피하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분야, 교과별 수업 계획 및 운영 분야, 학교건축 계획 분야, 교원 조직 및 인사 분야 등으로 국가 수준의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할 필요가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인사와 학부모의 참여로 확대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킬 수 있다.

여섯째, 교과교실형 학교 운영은 학교시설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시설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교육환경과 교육효과를 관계를 조망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영국의 '미래를 위한 학교건설 사업(Building School for the future)'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에서는 노후학교를 개축하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환경 친화적이면서 최신 ICT를 갖춘 학교건물을 건립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편리한 양질의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21세기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건물이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에 최적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학교설계를 평가하고 자문해주는 법적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교과교실형 학교 운영에서야말로 학교건물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재구성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학교시설의 교육적 적합성을 높이면서 환경 친화적인 관점으로 교과교실형 학교 모형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이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2009a), 교과교실제 본격 도입, 보도 자료, 5월 20일자
2. 교육과학기술부(2009b), 학생에게 즐거움, 교사에게 보람,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안), 내부 자료, 5. 20
3. 교육과학기술부(2009c), 교과교실제 추진 사업 설명회, 부산시교육청 발표회 자료, 6. 9
4. 교육과학기술부·충청남도교육청(2009), 교육과정 자율화 현장 적용도 제고를 위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워크숍, 교육과정 자료-6호(2009.07.09)

5.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교과교실제 시설담당자 워크숍, 교육자료 CRM 2009-12. 한국교육개발원
6. 김미숙외(2008), 수월성 제고를 위한 수준별 학습 확대 방안, 연구보고 RR 2008-33
7. 박영숙(2002),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교육명세서 기준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 2002-12, 한국교육개발원
8. 박영숙(2009), 교과교실제 추진 전망과 과제, 교육개발, Vol.36. No.2, 한국교육개발원, pp.18-23
9. 조동섭(2009), 교과교실제 시행과 미래형 교육과정, Vol.36. No.2, 한국교육개발원, pp.24-27
10.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8). Evaluation of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 2nd Annual Report. Final Report. December. London : Pricewaterhouse Coopers LLP